

결 정

2018 - 4002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뉴스스 발행인 김 형 기

주 문

뉴스스(newsis.com) 2017년 12월 6일자(캡처시각) 「男야동배우 曰 “하루 性관계 12번, 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베스트 핫링크

당뇨 "완치의길" 열렸다..30일무료체험
편의점 알바女,점주가 밤에 XX해서...
▶ 짚은'어깨통증', 원인 알고보니.."충...
짚은"어깨통증", 원인 밝혀져.."충격!!"
비O그라 50배! "밤새7번" 女 아주 환...
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준대서 밤에...
男야동배우曰 "하루 性관계 12번, 스..."
서민안심대출 "1억원"까지 특별지원!

<12. 6. 11:54:09 캡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425&cid=10201>

뉴스스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선전하면서 제목에 야동배우 운운하였다.
‘야동’은 법적·도덕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에 야동 배우에 관한 건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http://jdaily.co.kr/product/moa2/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prevPage=http%3A%2F%2Fjdaily.co.kr%2Fframe%2Fjad-bin.do%3FadPageCd%3DPC074&adCd=PC074&pdCd=AC1705010000002>>

[단독] 중년 男, 만성 '조루, 발기부전', 핵심성분 찾아.. 학계 충격

- 남성에 특화된 홍삼엑기스, 옥타코사놀,야관문 등 핵심성분의 황금비율 찾아
- 본사단독, 최고의 효과 두가지(활력소+고환마사지기)를 동시에!
- 가격은 동일하게! 상품은 푸짐하게! 300세트 한정판매 이벤트!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